



“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

■ 막 8:27-38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리는 기간입니다. 사도 시대부터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참회와 경건으로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지켜왔습니다. 우리교회는 금년 사순절 1)회개와 기도 2)한 끼의 식사 주님의 몫으로, 한 잔의 차 이웃의 몫으로 3)문화 절제, 탄소금식 4)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가 짚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사 53:4,5) 주님 스스로도 다가올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 예수님의 죽음은 온 세상의 근본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 주님의 질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장소가 특이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한 곳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단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변방의 땅은 언제나 다른 민족들과 인접하기 마련이었고 자연스럽게 이방문화의 유입과 신앙적 혼합도 극심했습니다. 사사기 18장에서 그들의 변절을 지적하는데 우상숭배를 시작했다는 것과 모세의 후손을 제사장 삼았다는 것입니다. 또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될 때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베엘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문제는 신약시대에도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헤롯빌립은 이곳을 빌립이 가이사에게 바친 도시라는 의미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로마 신들을 위해 많은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주님은 이 우상의 도시에서, 가이사라 구주라고 찬송하는 도시의 한 가운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시며 진리이심을 선언하는 고백입니다.

2. 주님의 책망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저항이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들붙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저항에도 나름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주실 것이라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 일을 위해 의기투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교회 역사에도 이런 유혹은 언제나 있어왔습니다. 이단 출현, 교회 분열, 급진적인 신학 등은 교회로 하여금 십자가 복음 증거하는 일을 훼방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책임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맙시다.

3. 주님의 당부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4절 첫 단어를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씀은 자기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요 자기 영광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미 지고 있는 자기를 위한 짐들을 내려놓아야만 가능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할 때, 주님은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의 좌우편에 서는 것이 결코 종교적 낭만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진실한 주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봄이 성큼 다가온 3월의 첫 주일이며,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사순절 공동기도카드를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한마음으로 나라와 세계와 교회를 위하여 사순절기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순절공동기도문 : <http://www.seoulchurch.or.kr/upload/Lent.jpg>

예배당에서는 꼭 스티커가 있는 자리를 확인한 후 앉으시고, 앞좌석 분과 간격이 가깝지 않도록 해 주시고, 대화 시에는 상호 간에 거리를 유지하며, 인사는 악수 대신 목례로 대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침, 발열 등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거나, 건강에 조금이라도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확산세가 다소 진정될 때까지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0306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 of on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안용근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교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 · 강해경, 양재성 · 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 · 김희정, 우상식 · 김정욱(인도), 서광중 · 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 · 황경혜(말라위), 김영호 · 서향정(러시아), 허창범 · 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 · 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과히 위대한 신앙인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백성의 조롱감이 된 고난의 종 그리스도는 “너를 네 하나님께서 구원치 않으시냐”면서 침 뱉을 당하시고 멸시당하셨다. 벌레 취급당하면서 다시 기도하신 고난의 종을 바라보자. 신앙이란 의지할 뿐 아니라 ‘말기는, 헌신하는 것’이다. 헌신 없는 신앙은 확실한 신앙이라 할 수 없다.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는 육체적 고통과 마음은 밀랍같이 녹아내렸다. 마침내 고난의 종은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를 회복한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알려지게 되었다. 예수님은 당신을 버림받지 않게 하시려고 자신을 버리셨다. 당신이 죄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의 죄를 대신 지셨다.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네가 믿느냐?”고 고난의 종된 메시아는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하시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전재홍 목사	오치열 장로
II 오전 11시	안용곤 목사	최광성 장로
III 오후 2시	김익환 목사	김익환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호 6: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4(4)...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24(사순절1)...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합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338(364)...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막 8:27-38...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봉헌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설 교 Sermon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549(431)...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 인도: 안용곤 목사, 설교: 양영호 목사

목 도 다 합 께
 성 시 미 6:8 인 도 자
 찬 송 208(246) 다 합 께
 기 도 감동옥 집사
 찬 송 210(245) 다 합 께
 성 경 살전 5:12-18 인 도 자
 순결서약식 말 은 이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든든히 서 가는 교회” ... 설 교 자
 * 찬 송 600(242) 다 합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합 께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조동수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 I부: 허미옥 권사 II부: 김정민 권사
 성 경 행 17:1-15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연·박수강·김복희2

설 교 손달익, 조원영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모임

1. 스테반 월례회 / 6일(주일) 오후 12시30분 502호
2. 권사회 헌신예배 준비 / 6일(주일) 3부 예배 후 502호
3. 정기당회 / 9일(수) 수요일 1부 예배 후 402호

알림

1.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예배 / 부서 모임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7.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8. 609호 부서 모임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9.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0. 702호 예배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1. 706호 예배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2. 이번주 심방 일정
1-1, 1-2, 3-4, 9-1다락방

장례

1. 故 신순옥 성도(6교구 임중태 집사의 모친, 이복희 집사의 시모) / 2월28일(월) 별세, 3월2일(수) 발인
2. 故 최은석 집사(2교구 최정숙 권사의 부친, 송성태 집사의 장인) / 3월2일(수) 별세, 3월5일(토) 발인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중고시설에 대한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른 예배 안내

- (1) 주일 1,2,3부, 찬양예배, - 대면, 실시간 생중계
교회학교 - 대면, 실시간 생중계
- (2) 수요일부 예배 - 대면, 실시간 중계
수요일부 예배 - 대면, 수요일부 예배 녹화 방송
- (3) 새벽기도회 - 대면, 실시간 중계

- 교회 예배 공간이 방역수칙 조건에 충분하고 철저한 사전 방역으로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원하시는 주일 각부 예배에 언제라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659명	469명	2,128명	428명	1,924명



보화를 찾아 나선 사람들

아프리카 흑인들이 번쩍이는 돌맹이를 온종일 주어다 주면 일당 몇 파운드를 받는 고마움에 영국인들에게 다이아몬드를 캐어다 바쳤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그 돌의 가치를 발견했을 때엔 이미 저들이 그 땅을 점령한 후였다.

모든 사람은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 그것이 물질적이든 사회적인 가치든 또는 도덕적인 것이든 인간은 의미와 보람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가치를 찾고 있다. 인생의 보화를 찾아 나선 사람이라면 보화를 보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 주변의 환경, 시간, 건강, 지식, 가족, 이웃, 국가 모두가 다 귀중한 보화들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가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것들이다.

천국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보화다. 그를 모시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에너지
절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오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